

Morning Meeting Brief

Fixed Income

9월 FOMC: 말이 아닌 행동

- 美 기준금리 4.00%로 인상. 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인상, 만장일치
- 긴축이 아닌 “완화 정도의 제거” 추가적인 인상 시사, 연내 1회 더 인상 전망
-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물가 잡기. 본격적인 커브 플래트닝이 안정 신호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선반영, 낙폭과대 인식에 KOSPI 5 거래일만에 반등

- 악재 선반영. 반도체 TOP2를 기반으로 한 저가 매수세
- 내일 새벽, FOMC 내 점도표 및 금리 추가 인상 관련 발언 주목
- AI 관련 대형주 강세. 기타법인 매수가 지수 하방을 지지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3Q26 Preview] LG 디스플레이: 3Q 수익성 체질은 개선, 환율 및 수요는 부담

- 3Q26 영업이익은 3,253억원으로 흑전(qoq)하나 컨센서스 하회 예상
-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IT기기 수요 둔화 및 고정비 부담 가중
- OLED 비중 확대로 수익성 체질은 개선, 영업이익은 성장 지속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Issue & News] NAVER: 불확실한 디지털자산 규제, 지연과 방향성은 구분

-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절차표결 부결로 입법 불확실성 확대, 국내 제도화에 대한 대외 촉진 유인도 약화 가능
- 정책 · 인허가 불확실성은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과 스테이블코인 사업 가시화 시점에 부담
- 중기 사업 방향성과 단기 지연을 구분하되, 본업 가치 훼손 없이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될 경우 매수 기회 검토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Industry Report] 제약업: ERS 2026 후기 : Omlyclo 가 보여준 ‘Next Biosimilar’

- ERS 2026, 호흡기 Biologics 치료 세분화 · 조기 치료와 접근성 부각
- Omlyclo, First-mover 기반 유럽 주요국 점유율 빠르게 확대
- Switching을 넘어 치료 환자군 확대 가능성 주목, Top-pick 셀트리온

홍가혜. kahye0.hong@daishin.com

[고배당 고금리 Issue & News] KT: 실수요에 기반한 AIDC

- 실수요에 기반한 AIDC 전략. 기확보한 200MW 포함 31년까지 1GW 공급
- AIDC와 해저케이블 포함 AI 매출은 26년 9천억원, 31년 4.8조원 목표
- 자사주 누적 5천억원 취득 완료. 잔여 5천억원의 조기 집행 가능성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rak
dongrak.kong@daishin.com

9월 FOMC: 말이 아닌 행동

- 美 기준금리 4.00%로 인상. 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인상, 만장일치
- 긴축이 아닌 “완화 정도의 제거” 추가적인 인상 시사, 연내 1회 더 인상 전망
-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물가 잡기. 본격적인 커브 플랫폼닝이 안정 신호

미 연준, 9월 기준금리 4.00%(상한 기준)로 25bp 인상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인상이며, 기준금리가 변경된 것으로는 지난 1월 동결 전환 이후 8개월 만이다.

연준은 9월 15일~16일 (현지시각) 양일간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3.75%에 3.75~4.00%로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점도표를 통해 연준은 올해 추가 1회 인상을 시사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긴축이 아닌 “완화의 정도를 일부 제거”

9월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의견 대립이 상당했다. 물론 회의 직전 대거 인상을 쪽으로 의견이 쏠렸지만 불과 1주일 전까지도 인상과 동결을 주장하는 견해들이 서로 팽팽했다. 특히 이번 대립의 특징은 인상을 전망하는 쪽은 ‘물가 부담으로 인상 불가피’였던 반면 동결을 주장하는 쪽은 ‘물가 부담이 크지만 연준이 인상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양측 모두 인플레이션 부담은 함께 인정하나 연준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의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런 치열한 의견 대립에도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회의 직전 사실상 무력 시위에 가깝게 금리가 크게 상승했던 여파가 컸다. TB 10년 금리가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5%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연준의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컸다.

이에 연준은 실제 기준금리 인상함으로써 물가 안정 의지를 드러냈고, 관심을 모았던 워시 의장 회견 역시 시종일관 인플레이션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이러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는 금리 결정 직후 함께 공개된 성명서에서도 그대로 찾을 수 있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워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그랬다”라며 “우리는 완화의 정도를 일부 제거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을 긴축이 아닌 완화의 제거라는 표현을 통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는 금리 결정과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6년 말 기준금리 전망이 이번 인상에 더해 1회 더 인상되는 것으로 전망된 것(중위값 기준 4.1%)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한 워시 의장은 지난 회의에서 적잖은 실수로 인식되고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변화를 줬다. 바로 금융 여건에 대한 진단으로 워시는 “금융여건이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료들 역시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높아진 금리 수준으로 인해 금융 여건이 이미 긴축적으로 변화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비교할 때 긴장의 수위를 크게 끌어올린 발언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선반영, 낙폭과대 인식에 KOSPI 5 거래일만에 반등

- 악재 선반영. 반도체 TOP2를 기반으로 한 저가 매수세 유입
- 내일 새벽, FOMC 내 점도표 및 금리 추가 인상 관련 발언 주목
- AI 관련 대형주 강세. 기타법인 매수가 지수 하방을 지지

악재 선반영. 반도체 TOP2를 기반으로 한 저가 매수세 유입

4거래일간 약 5.8%(-406p) 하락으로 단기 낙폭 과대 심리 유입. 9월 FOMC(현지 15~16일)의 25bp 인상 가능성은 이미 지난주부터 금리·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 결과 발표(한국시간 17일 오전 3시, 파월 의장 회견 3시 30분)를 앞두고 '악재 선반영 후 이벤트 소화' 국면으로 인식되면서, 결과 확인 전 포지션을 미리 줄여둔 자금의 재유입과 낙폭 되돌림 매수 유입

시장의 관심이 금리 결정 자체보다 점도표(SEP)와 추가 인상 여지 문구로 이동해 있다는 점도 '결정 자체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다'라는 심리를 뒷받침

9/14 급락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기 밸류에이션 매력에 증폭된 가운데, AI 수요·메모리 업황의 구조적 개선 스토리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유지되며 반도체 투톱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 지수 반등폭 확대를 견인. 최근 급락 국면마다 자사주 매입에 따른 기타법인 매수가 하방을 지지해온 점도 수급상 완충 요인

내일 새벽, FOMC 내 점도표 및 금리 추가 인상 관련 발언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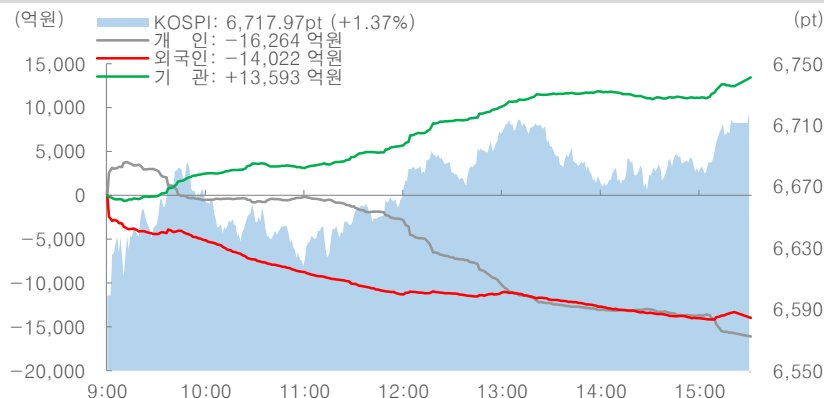
전일(9/15) 코스피가 4일째 밀리는 동안에도 코스닥은 +0.70% 반등하며 디커플링을 보임. 사이버보안·바이오 등 개별 테마로 단기 자금이 순환하며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시사했고, 이 흐름이 금일 대형주 저가 매수로 확산되는 발판이 되었다고 판단

내일 새벽 FOMC 결과와 점도표 수준에 주목. 매파적 스탠스 선반영으로 채권금리 상승 압력이 고점을 통과한다면 증시 반등탄력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

AI 관련 대형주 강세. 기타법인 매수가 지수 하방을 지지

새로운 악재는 부재했지만, 금리,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레벨업이 선반영에 대한 인식, 저가 매수 세력 약화로 이어진 것. 9월 FOMC에서 금리인상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흐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KOSPI 6,600선 지지력 확보 가능성 유효. 선행, 확정실적 PBR 기준 올해 평균의 -1표준편차 수준으로 의미있는 지지권역. 9월 FOMC 금리인상도 선반영한 상황에서 현재 채권금리 수준은 고점권이고, 증시는 저점권에 근접했다는 판단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 중 흐름 (9/16)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G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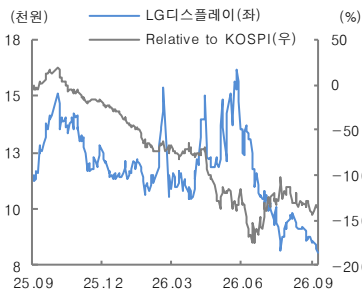
(03422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2,000
하향
현재주가 8,470
(26.09.16)
디스플레이업종

KOSPI	6717.97
시가총액	4,23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2,50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6,690원 / 8,47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54억원
외국인지분율	26.66%
주요주주	LG전자 외 1인 36.73% 국민연금공단 5.0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5	-39.2	-25.9	-36.4
상대수익률	-14.3	-21.0	-38.8	-67.3



	2025	2026F
주당배당금(DPS) (원)	0	0
수익률(%)	0.0	0.0
총주주환원 (십억원)	0	0
수익률(%)	0.0	0.0

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추정 추정치는 12M FWD 기준

3Q 수익성 체질은 개선, 환율 및 수요는 부담

- 3Q26 영업이익은 3,253억원으로 흑전(qoq)하나 컨센서스 하회 예상
-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IT기기 수요 둔화 및 고정비 부담 가중
- OLED 비중 확대로 수익성 체질은 개선, 영업이익은 성장 지속

투자 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2,000원 하향(29.4%)

2026년 3Q 영업이익은 3,25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흑자전환(-24.5% yoy)하나 종전 추정(4,360억원) 및 컨센서스(4,045억원)대비 하회로 추정. 매출은 6.67조원(컨센서스 6.91조원)으로 18.8%(qoq/-4.2% yoy) 증가 추정. 영업이익의 하회 및 부진은 ① 원달러 평균 환율(9/15 기준)이 2Q26대비 -4.6% 하락, 6월말대비 -12.7% 하락하면서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 ② 추가로 반도체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IT기기의 판매 가격도 상승,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2026년/2027년 주당순이익(EPS)은 종전대비 적자유지/-45% 하향, 목표주가를 12,000원(2027년 BPS X 목표 P/B 1배(실적 호조 평균)로 하향 및 투자 의견은 매수(BUY) 유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중확대 유지

2H26 영업이익은 6,317억원으로 5.4%(yoy) 증가 추정

2026년 3Q 매출은 6.67조원(+18.8% qoq/-4.2% yoy), 영업이익은 3,253억원(흑전 qoq/-24.5% yoy)으로 추정. 북미 전략거래선의 모바일용 OLED 패널은 증가, 프리미엄 모델 비중 확대로 믹스 효과를 예상. 다만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여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의 판매 가격 상승이 부품업체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 주요 IT기기의 수요 둔화 및 마진을 하락(스마트폰, TV, PC, 태블릿PC가 수요 둔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분이 공급 가격에 제한적으로 반영)으로 연결

중장기적으로 북미 전략 거래선내 점유율 증가, 대형 OLED 패널에서 감가상각비 축소, 또한 OLED 매출 비중의 확대로 수익성 개선 흐름은 유효 판단. 연간 영업이익은 2025년 5,170억원으로 흑자전환(yoy) 이후에 2026년 6,707억원, 2027년 1.06조원으로 확대 전망. 북미 전략거래선의 스마트폰 출시 전략이 상/하반기로 전환, 2027년 상반기에 과거처럼 비수기 영향이 최소화되면서 고정비 부담 완화, 수익성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3Q25	2Q26	3Q26(F)					4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6,957	5,612	7,065	6,666	-4.2	18.8	6,909	6,790	-5.7	1.9
영업이익	431	-108	436	325	-24.5	흑전	404	306	81.8	-5.8
순이익	-21	-405	34	17	흑전	흑전	34	14	흑전	-16.8

자료: LG디스플레이,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NAVER

불확실한 디지털자산 규제, 지연과 방향성은 구분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2026.09.17

NAVER (035420)

투자조건

BUY

목표주가

320,000

현재주가
(09.16)

201,500

-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절차표결 부결로 입법 불확실성 확대, 국내 제도화에 대한 대외 촉진 유인도 약화 가능
- 정책인허가 불확실성은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과 스테이블코인 사업 가시화 시점에 부담
- 중기 사업 방향성과 단기 지연을 구분하되, 본업 가치 훼손 없이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될 경우 매수 기회 검토

기약 없어진 클래리티 법안, 더디게 진행되는 디지털자산 규제화

- 현지시간 9월 15일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심의를 위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 부결.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탈표 발생
- 상원의 절차 표결 부결로 인해 11월 중간선거 이전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 중간선거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통과에 실패할 경우 차기 의회의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입법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 선거 이후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 상실 우려 등을 고려하면 법제화 전망 불투명
- 한국은 연초 추진되었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법안 도입이 지연되는 중, 미국의 법제화 지연은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규제 등 쟁점에 대한 레퍼런스 약화와 동시에 글로벌 규제차익 우려에 따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대외적 입법 촉진 요인을 약화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추가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 주식교환 및 이전 예정 일자는 최초에 공시된 '26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늦춰졌으나 이 또한 법안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입법 및 인허가 당국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경로에 주목.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과 금융당국의 대주주 관련 승인/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금융당국 승인의 근거와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 네이버파이낸셜은 금년도 7월 공시에서 두나무와의 주식교환과 거래 진행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
- 다만 법안 통과 자체가 필수 선행조건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며 미국 법안 표결이 국내 법안 일정과 결합 거래를 자동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아님. 기대감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대응이 합리적

사업 가시화 지연에 따른 하방 압력을 고려한 투자전략

- 기업결합이 승인되더라도 NAVER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정책 방향에 맞춰 설계 및 진행되어야 할 것. 제도 정비의 지연은 조기 사업화 기대를 낮출 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결제 사업 구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수익화 시점에도 불확실성 반영 불가피
- 글로벌 규제 지연과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 기대 약화,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격/거래량 부진으로 인해 계약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시장에서 평가되는 두나무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부담요인
- 다만, 국내외 정책 당국의 규제 도입은 지연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성이 틀어진 것은 아니며 현재 주가 수준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활성화와 두나무와의 사업 결합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유의미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 향후 기업 결합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본업과 기존 자산가치 대비 과도하게 조정될 경우 단기 주가변동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을 것

제약업

홍가혜
성하원kahye0.hong@daishin.com
hawon.sung@dai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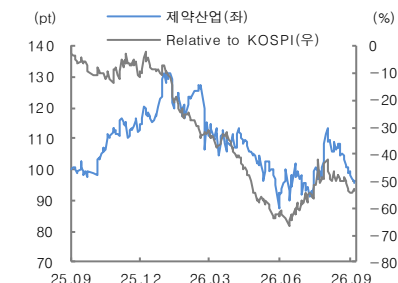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셀트리온	Buy	280,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4	-0.6	-12.7	-4.7
상대수익률	-9.0	29.1	-27.9	-51.1



ERS 2026 후기: Omlyclo가 보여준 'Next Biosimilar'

- ERS 2026, 호흡기 Biologics 치료 세분화조기 치료와 접근성 부각
- Omlyclo, First-mover 기반 유럽 주요국 점유율 빠르게 확대
- Switching을 넘어 치료 환자군 확대 가능성 주목, Top-pick 셀트리온

ERS 2026 Key takeaways: Biologics 확대의 다음 과제는 치료 접근성

유럽호흡기학회(ERS;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2026에서는 호흡기 생물학적 제제(Biologics) 치료가 phenotype·biomarker 기반으로 세분화되는 동시에 임상적 관해와 질환 진행 억제를 목표로 치료 대상과 시점이 확대되는 흐름을 확인함. 다만 높은 약가와 제한적인 보험급여로 실제 치료 침투율은 여전히 낮아, 향후 biologics 치료 환자 확대의 핵심 과제는 치료 접근성 개선에 있다고 판단함. 현지 주요 임상요(ΚOL; Key Opinion Leader)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치료 적합 환자의 약 30%만 biologics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가 부담 완화 시 신규 치료 환자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Omlyclo가 보여준 Next Biosimilar

Omlyclo는 호흡기·알레르기 영역의 첫 바이오시밀러로 2025년 하반기 유럽 시장에 first-mover로 진입해 덴마크 99%, 스페인 90% 이상, 노르웨이 84%, 독일 44% 등 주요국에서 빠른 점유율 확대를 시현. 초기 real-world data에서 Xolair 전환 후 질환 조절과 내약성이 유지되는 결과를 확보했으며, 300mg 제형 확대 등 제품 경쟁력도 강화 중임. 향후 성장 기회는 기존 Xolair 환자 전환을 넘어 가격 및 급여 접근성 개선에 따른 신규 치료 환자 유입에 있음. 미치료·불충분 치료 환자가 새롭게 유입될 경우 바이오시밀러의 역할은 단순 originator 대체에서 전체 치료 환자군 확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함.

신규 바이오시밀러 기회 확대, Omlyclo로 확인한 경쟁력

향후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특허만료와 미국·유럽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간소화로 신규 바이오시밀러 개발의 경제성이 개선될 전망. 특히 대형 블록버스터뿐 아니라 경쟁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중대형 품목에서도 신규 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함. 셀트리온은 확대된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직판망을 기반으로 이러한 시장의 선점 기회를 지속 확보할 것으로 전망함.

Omlyclo는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 유럽 주요국에서 빠른 점유율 확대와 상업화 성과를 확인했으며, 제품 매출액은 2026년 4,266억 원(+330% yoy), 2027년 6,185억 원(+45% yoy)으로 확대되며, 향후 동사의 주력 품목으로 성장 기대. 옴니클로·애포즈마 등 신제품 기여 확대에 따라 2026년 연결 매출액 5.6조원(+35% YoY), 영업이익 1.9조원(+62% YoY)을 전망. 업종 Top-pick으로 유지.

KT (030200)

김화재

hojae.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74,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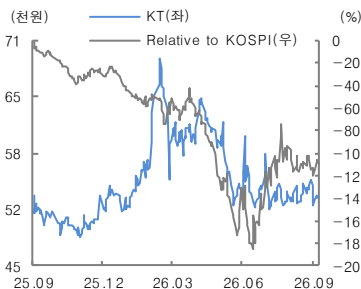
52,800

(26.09.16)

통신서비스업중

KOSPI	6717.97
시가총액	13,30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0%
자본금(보통주)	1,56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8,900원 / 48,2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39억원
외국인비율	49.00%
주요주주	현대자동차 외 1 인 8.07% 국민연금공단 7.0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1	-6.7	-10.4	2.9
상대수익률	2.7	21.2	-25.9	-47.1



	2025	2026F
주당배당금(DPS) (원)	2,400	2,700
수익률(%)	4.6	5.1
총주주환원 (십억원)	829	857
수익률(%)	6.3	6.4

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추정 추정치는 12M FWD 기준

실수요에 기반한 AIDC

- 실수요에 기반한 AIDC 전략. 기확보한 200MW 포함 31년까지 1GW 공급
- AIDC와 해저케이블 포함 AI 매출은 26년 9천억원, 31년 4.8조원 목표
- 자사주 누적 5천억원 취득 완료, 잔여 5천억원의 조기 집행 가능성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74,000원 유지

26E EPS 6,193원에 PER 13배 적용. 최근 5년 통신업 평균(KT, LGU+ 기준)에 30% 할증 적용

실수요에 기반한 AIDC 전략. 31년 1GW, 매출 4.8조원 목표

26.8월 KT CEO 콤데이, 9월 KT Cloud Summit 2026을 통해 AIDC 사업 구체화
AIDC의 기본 전략은 실수요에 기반한 투자

향후 5년간 AI 인프라 투자에 6조원 집행 계획(AIDC, 해저케이블 등)
31년까지 AIDC 1GW 단계적 구축 계획

Tier1. 수도권. AI 수요의 중심, 초저지연 대규모 인프라. 타겟 고객군별 클러스터로 확장. 여의도(금융 특화), 목동(국내외 CSP), 안산/용인(AI GPU Zone), 부천/청라 (국내외 빅테크)

Tier2. 준수도권. 수도권 인접, 확장 거점

Tier3. 비수도권. 빠른 공급과 대규모 확장성. 경상권(글로벌 연결 특화), 전라권 (Neocloud 확장), 부산/거제는 국제 해저케이블 육양국 운영, 제주 육양국 건설

27년~29년 실수요에 기반한 200MW 사이트 확보, 추가 20여개 사이트 대상 800MW도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31년까지 1GW 공급 계획

해저케이블 육양국은 부산, 거제 등 동남권에 집중. 동남권(포항, 울산) 신설 검토, 남부권(제주) 건설 중, 서남권(해남, 새만금, 고흥) 등 신설 검토

향후 AIDC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도입으로 자율운용 체계 구축

KT가 제시한 매출 목표는 26년 9천억원(AIDC 7천억원, 해저케이블 2천억원)
31년 목표는 4.8조원(AIDC 4.4조원, 해저케이블 4천억원)

주주환원 우수 기업

03년 이후 누적 배당 성향은 별도 당기순이익의 58%

24년에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기반하여 착실한 주주환원 이행
25~28년 자사주 1조원 중 5천억원 취득 완료

비핵심자산 매각 진행 후, 자사주 잔여 5천억원의 조기 집행 가능성
12M FWD 기준 DPS는 2.7천원, 수익률 5.1%. 총주주환원 8.6천억원, 6.4% 전망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